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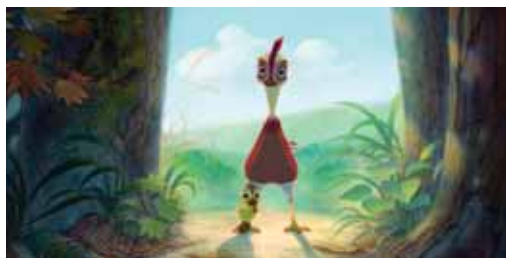
문화전당서 아시아의 설 만나 보세요

25~30일 정유년 음력 새해맞이 다채로운 행사

영화·공연·체험 행사 즐기고

붉은 닭 문화적 변천 강연 듣고

떡국·땃섬·쌀국수 설 음식 맛보고



애니메이션 '마당을 나온 암탉'

아시아 각국의 설 풍경은 어떤 모습일까.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 설을 맞아 전시·공연·체험 이벤트 등 다양한 새해맞이 행사를 펼친다.

25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정유년 새해맞이, 아시아의 설과 닭의 상징' 테마전은 세시풍속과 의례, 닭과 관련한 문화 등을 엿볼 수 있는 기회다.

1부 '아시아의 설'에서는 12간지가 있는 아시아 국가들에서 설이 갖는 의미와 유래를 살펴볼 수 있다. '재생, 부활'을 의미하며 송구영신(送舊迎新)의 상징으로 여겨진 닭에 대한 의미도 알아본다. 2부 '정유년, 붉은 닭의 해'에는 고대부터 오늘날까지 생활 속 '붉은 닭'의 문화적 변천과 의미를 담았다. 아시아에서 발생한 정유년의 흥미로운 사건과 풍속에 대한 이미지를 스토리텔링해 볼거리를 더했다. 3부 '닭과 ACC 아카이브'에서는 닭을 소재로 하는 문화전당 아카이브 자료와 영상을 선보인다. 우리나라 근대 풍속을 보여주는 이경모, 김기찬 작가들의 사진과 닭 관련 퍼포먼스 아트 기록사진, 광주비엔날레 영상 등이 전시된다.

ACC 라이브러리파크 블랙박스에서는 닭을 소재로 한 영화 상영과 대중 강연이 진행된다. 25일 오후 2시 열리는 '위대한 새' 강연에서는 영화에 나타난 닭 이미지에 대한 해설을 들을 수 있다. 또 '집으로', '치킨리틀', '마당을 나온 암탉' 등 가족 영화를 25~30일 오후 2시 매일 1편씩 상영한다.

설 당일(28일) 오후4시에는 신년 음악회 '2017 설날이달! 굿(Good)한마당'으로 신년을 연다.

국악 갈라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음악회에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전남대 국악학과 교수·학생 등이 참여한다. 판소리·남도민요·씻김놀이 등 다양한 장르 국악을 소개할 예

정이다.

만 7세 이상 대상 무료이며, 홈페이지(www.acc.go.kr)와 콜센터(1899-5566)를 통해 사전 예약을 받는다.

또한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는 '술 레스토랑'에서 떡국, 중국 뚝섬, 베트남 쌀국수 등 아시아 음식을 무료로 즐길 수 있다.

어린이를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어린이문화원 체험관에서는 26일부터 3월31일까지 5~13세를 대상으로 '복주머니', '한지등', '노리개' 등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는다. 입장료 유료.

어린이도서관에서는 29일(오후 3~4시) 그림책 '손 큰 할머니의 만두 만들기' 구연과 함께 점토로 만두를 빚어보는 '놀러와, 이야기 숲으로'를 운영한다. 28일(5~7세 오후 2시·초등 1~6학년 오후 4시)에는 동화책 속 아시아를 살펴보는 '책으로 펼쳐는 아시아'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어린이문화원 로비에서는 '바가&본드', '그린티', '웃음마블링' 등 코미디 서커스, 비틀방울 퍼포먼스 공연이 27~30일 매일 두차례(오전 11시·오후 2시30분) 펼쳐진다.

설맞이 SNS 이벤트도 진행한다. 27일부터 30일까지 아시아문화광장 내 '설날이달! 포토 존'에서 사진을 촬영해 문화전당 페이스북(facebook.com/asiaculturecenter) 이벤트 페이지에 올리면 선착순 20명에게 문화상품권과 예코백을 경품으로 증정한다.

그밖에 웹툰체험전, "This moment : 태국" 이하 라이브러리파크, '클럽몬스터'(문화창조원) 등 다양한 전시도 감상할 수 있다. 문의 1899-5566.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설을 맞아 25~30일 풍성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포토존 모습.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제공>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사진작가 리일천 23번째 개인전



'Man who is appropriate II'

내달 1일까지 무등갤러리

사진 속 여백이 화면 반을 차지하지만 텅 비어 보이기보다는 짙은 느낌이다. 시공간을 표현한 정지된 풍경은 철학적 사유를 제시한다.

리일천 사진작가가 무등갤러리에서 2월1일까지 23번째 개인전 'Chaosmos, Space-timeIII'을 연다.

카오스모스(chaosmos)는 카오스(chaos·혼돈)와 코스모스(kosmos·질서)가 합쳐진 말로, 리 작가가 지난 10년간 작품에 담고 있는 주제다.

리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공간과 시간을 동시에 표현한 작품 30여점을 선보인다.

북인도, 네팔 등에서 석가모니 성지순례 기록 작업을 하기도 했던 리씨는 장소의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담고 있다. 작품 주요 소재는 제주도 본태박물관 등 일본 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설계한 건물들이다.

작품은 누드 시멘트 기법과 인공지능에 비친 하늘을 렌즈에 담아 공간의 확장상을 이야기한다. 또한 전시작들을 액자에 넣지 않음으로써 내면의 틀을 깨고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찾자는 메시지를 전한다.

특히 작가는 전시각적 개념으로 대상을 바라보고 이미지로 형상화했다. 리 작가는 "이번 전시는 심혈을 기울여 작업했던 과정을 집대성했다"며 "작품 속 자연을 통해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계기를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리씨는 <대한국프로사진협회, <대한국 사진작가 협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며 '광주 미술인 100인 사진 기록'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문의 062-236-2520.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가장 완벽한 성장영화 '빌리 엘리어트' 재개봉

지난 2001년 개봉 후 '완벽한 성장영화'로 호평받은 '빌리' 신드롬을 일으켰던 '빌리 엘리어트'가 오는 26일 재개봉한다. 영화는 뮤지컬로도 제작돼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빌리 엘리어트'는 권투 클럽 대신 토슈즈를 선택한 탄광촌의 가난한 소년 빌리가 꿈을 향해 뛰어오르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로 '더 리더-책 읽어주는 남자' 등을 만든 스티븐 달드리 감독의 장편 데뷔작이기도 하다.

2000년 1의 경쟁률을 뚫고 '빌리' 역에 캐스팅됐던 제이미 벨은 15세의 어린 나이로 영국아카데미 남우주연상, 크리



틱스초이스어워즈 아역배우상, 런던비평가협회 신인상을 휩쓸기도 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Don't be surprised'

유·스퀘어 청년작가 고차분 개인전 내달 6일까지 금호갤러리

지난해 유·스퀘어 청년작가 전시공모에 선정된 고차분 작가가 2월 6일까지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갤러리에서 개인전 '꿈'을 연다.

고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집'을 단순화 시켜 반복적인 패턴으로 그린 서양화 작품을 선보인다.

작가에게 집은 평안, 쉼, 즐거움, 행복 등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다.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의미하며, 동시에 현대 사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작품 속에 드러내고 있다.

작품 'Don't be surprised'는 비슷한 패턴과 화려한 색채로 동화적인 평면화와 방식을 보여준다. 일기처럼 어린

시절의 시간과 기억을 그려내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숲과 같은 집이 되기를 바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관람객이 직접 나만의 집을 그려볼 수 있는 체험공간도 마련했다.

고씨는 "집에 대한 비슷한 경험이냐 생각을 가진 다른 사람들과 작품을 통해 소통하는 자리다"고 소개했다.

목포대학교 미술대학 미술학부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고씨는 지난해 은암미술관 레지던스 지원사업을 통해 첫 번째 개인전을 열었고 이번 전시가 두번째 개인전이다. 문의 062-360-8436.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국제보청기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www.shinyangparkhotel.com

고객의 행복을 창조하는 곳

무등산의 자연이 아름다운
도심속의 휴식공간
아름다운 야경이 있는
신양파크호텔

신양파크호텔 맞춤 출장파티

교회·성당 웨딩 출장파티, 가족모임, 기업체 등 각종 기념 출장파티를 고객이 원하는 장소와 금액에 신양파크호텔의 연회음식과 분위기를 그대로 옮겨 드립니다.

(주) 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Tel. 062-228-4711~2